

#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변 영 희\*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Ugliness Images Expressed in Modern Make-up

-Focused on the Color Expressions-

Young-Hee Byun\* · Keum-Suk Chae\*\*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11. 13 투고)

### ABSTRACT

Since around 1990, some experimental and shocking ugliness images have been expressed in Fashion and Make-up as well as Fine 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ugliness images expressed in Modern Make-up from 1995 to 2003, especially focusing on color, and to enlarge the expressions through formative elements and to anticipate the prospect of Make-up in the future.

Ugliness is the most negative aesthetic value which is lack of beauty. The 20 century art trends representing the ugly shape have been distorted or deformed or destroyed and extremely exaggerated with yellow, red, black, blue, white, green.

The image and color of ugliness can be summarized as historical, avant-garde, decadence, de-constructive, humorous, futuristic trend and Most of colors are the achromatic ones like black, white, dark gray and red, blue, dark brown and so on. These colors cause some negative attributes such as fear, anger, death, devil, pain, bad, ill omen, sorrow, despair and the like. At the turning point in 21C are to be extended the range of color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attempts such as informal, collage, graphic and the forth.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ugliness images expressed in the color of Modern Make-up have been analyzed into formlessness and inaccuracy and deformation by Karl Rosenkranz's theory.

Key words : ugliness(추(醜)), formlessness(불형식성), deformation(왜곡)

## I. 서론

그 동안 메이크업은 얼굴의 표면에 직접 표현된다는 제한성으로 인해 표현방법이나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20C 이후 무제한적인 美의 수용은 전형적인 미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개성 표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미적 의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게 되었다. 즉,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과장되고 변형된 실험적인 추(醜)의 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패션쇼 메이크업에 표현된 여러 경향을 반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무시되거나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추 이미지 메이크업의 경향과 추이미지의 색채 표현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여러 조형요소를 통한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반미적 패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고 적극적인 추를 특별한 아름다움으로서 규정지을 수 있는 미학적 근거를 제시하여<sup>1)</sup> 미래의 토탈 패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추(醜) 개념과 로잔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바탕으로 미술과 패션에 표현된 추 이미지와 색채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를 역사형, 전위형, 퇴폐형, 해체형, 해학형, 미래형의 6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메이크업의 특징과 색채를 분석·정리하였다.

셋째, 메이크업의 색채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의 특성을 로잔크란츠(Rosenkrantz)의 '추의 미학'을 토대로 몰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적 개념에 관한 내용은 현대 예술 및 미학에 관한 국내외의 단행본을 참고하였고,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에 관한 내용은 현대 패션 및 메이크업 관련 단행본과 선행 연구된 학위논문 등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메이크업에 관한 시각자료는 1995년부터 2003년에 발행된 여러 패션잡지나 각 디자이너 컬렉션 인터넷페이지(www.firstview.com)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180여명의 작품 860여 점을

선정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추(醜)의 개념

추(醜)는 미가 결핍된 상태 즉,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고대 희랍 시대에는 악과 같은 의미로 취급되어 배척하였으며, 플라톤(Platon)은 경멸적인 것과 사소한 것 즉,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추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추를 쾌·미의 결핍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였으며<sup>2)</sup>,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추가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하위 요소의 개념이라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추가 형태의 결합과 질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주장하였으며, 헤겔(Hegel)과 피셔(Fischer)의 미학에서 추는 악 또는 부정적인 것을 현상에 가져와 이념의 순수한 현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이 시기까지의 추 개념은 비체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추가 미적 의의를 갖고, 예술의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문예 부흥기 이후로 20세기 해석학을 대표하는 가다머(Gadamer)는 자연의 세계에서는 미와 추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열화 할 수 없으며, 추를 완성의 개념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립스(Lipps)는 추가 '소극적인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추의 공동된 특성은 미적 범주 가운데서 최대한 '불쾌하고 부조화된 모습'을 띤 것으로 이를 통해 대상에 활기를 부여하고 특수한 쾌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sup>4)</sup>.

### 2. 추(醜)의 미학

서양 미학사상 최초로 추의 미학을 체계화시킨 헤겔학파의 한 사람인 로잔크란츠(Karl Rosenkrantz)는 추를 미의 속성으로 파악하면서 미와 추의 상관 관계를 풀어나간다<sup>5)</sup>. 그에게 있어 추는 이상의 실제

적인 분석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추는 부정적인 미로 불완전한 미를 의미하지는 않고, 미의 부정이자 미와 동격의 대립 개념인 것이다. 그는 존재 영역에 따라 추를 자연의 추·정신의 추·예술의 추로 분류하였으며, 미적 대상의 형식과 내용 및 이들의 관계인 표현 중 어느 것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형상의 반대인 '불일치', 형상의 반대이면서 구별적 배치를 뜻하는 '불균형', 반대적 형상의 개별자인 '부조화'로 구분되는 '물형식성'과 표현의 '부정확성' 및 정신적 자유의 부정을 바탕으로 하는 '왜곡'으로 나누었고, 왜곡은 다시 비속·혐오·회화로 구분하였다.

즉, 불일치는 형식 내에서 구별되고, 물형식은 형식의 적극적 반대 속에서 진행되며, 형태의 난잡성은 추한 것이 된다. 불균형은 확실한 비형식으로 균형적인 부재에 이미 난잡성이 있고, 이는 다른 것을 억압 소멸케 한다. 부조화는 추한 것이라도 동일한 구별이 있을 때는 미가 되므로 부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대칭과 규칙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부정확성은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로 예술적 불완전을 의미한다. 왜곡이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의 무시를 뜻하며, 이 중 비속은 적대적인 특질이 과도하게 구현되었을 경우이고, 혐오는 무섭거나 소름끼치는 것에 대한 것이며, 회화는 예술 작품의 결함을 조롱·경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 3. 예술에 나타난 추(醜) 이미지

#### 1) 미술

20C를 전후로 유럽 각지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과격하고 혁신적인 미술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과거의 유미적 예술조류에 반발하여 추한 것, 무형식적인 것 등을 예술에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술 특성은 새로움과 극단화<sup>8)</sup> 모든 구성 요소를 모던의 전통으로부터 빌려와 부풀리고, 과장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sup>7)</sup>, 이러한 반미적 경향은 가치의 붕괴이자 미적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는 단절의 전위 개념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전통의 부활 및 절충주의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본문에서는 새롭고 극단적인 아방가르드 경향과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미술에 나타난 반미적 경향인 추의 표현과 이에 따른 색채 표현을 살펴보았다.

인상주의(Impressionism)는 사물의 표피적인 외관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빛의 흐름에 따른 색채 변환과 형태 왜곡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전달하였다. <사진 1>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으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소용돌이치는 화필과 색채를 통해 작가의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sup>8)</sup>.

야수주의(Fauvism)는 강한 색채를 표현적 언어로 사용하여 선과 명암의 구분을 없애고, 부분 색채 강조와 보색조의 사용 및 심한 굴곡의 윤곽선 기법으로 묘사하였다. <사진 2> 마티스의 '춤'은 형태의 단순화 및 제한된 색으로 강한 색상대비를 이루고 있다.

표현주의(Expressionism)는 자유로운 감정의 표출을 기초로 한 사조로써 세기말 유럽인의 위기와 종말 의식을 배경으로 한다<sup>9)</sup>. 원시예술의 피기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여 상징·암호, 생략·기호에 따른 왜곡과 추상의 형식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sup>10)</sup>, <사진 3> 몽크의 '절규'에서는 왜곡된 형태와 색채를 통해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입체주의(Cubism)<sup>11)</sup>는 새로운 평면적 원근법을 창조하여 회화상의 혁명을 이룩하였다. <사진 4>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로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흑·백·회색의 무채색만을 사용하였으며,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왜곡시켜 공포와 혼란상을 나타내고 있다.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억제된 연상의 실재성을 기초<sup>12)</sup>로 현실을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시켜 초월적인 상태로 변형시켰다. <사진 5> 달리의 '내란의 예감'은 육체를 심하게 변형시켜 기괴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재조명함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 패션

현대 패션의 경향은 각 영역간의 무제한적 상호 교류에 따른 탈 경계화와 장르의 혼합 및 붕괴 현상으로 인해 개념 정의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는데<sup>13)</sup>

<표 1> 미술에 나타난 추(醜)의 형태

<사진 1> Gogh 「별이 빛나는 밤」	<사진 2> Matisse 「춤」	<사진 3> Munch 「질규」	<사진 4> Picasso 「게르니카」	<사진 5> Dali 「내란의 예감」

<표 2> 미술에 나타난 추(醜) 이미지와 색채

인상주의	색채 변환과 형태 왜곡 및 형태의 단순화	무지개와 같은 찬란한 색채	yellow, red, blue, green, white, black
야수주의	형태 왜곡·실제 세계와 무관한 원시적 형태	색상 대비의 강렬하고 과장된 추상적 색채	yellow, red, blue, green, black
표현주의	추상적 형태 및 색채의 극단적 왜곡·변형	원시적·격렬한 색채	yellow, red, blue, green, white, black
입체주의	대상의 분석에 의한 형태의 파괴·재구성	차분한 색조 및 무채색으로 절망감 표현	yellow, red, blue, gray, white, black
초현실주의	비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변형시킨 반 추상적 형태	상상력에 따른 환각적 색채	yellow, orange, red, blue, green, white, black
	과장·왜곡·변형·생략	강렬하고 과장된 색채	yellow, red, black, blue

복식의 여러 현상을 대표하는 다원적·해체적 경향을 분석해봄으로써 복식에 내재된 추(醜)의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패션을 색채 중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문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추 이미지만을 언급하였다.

먼저 다원적 경향은 모호성, 임의성, 곡해, 해체, 절충, 변용 등의 개념을 갖는<sup>14)</sup> ‘불확정성(Indeterminacy)’<사진 6>과 서구 중심·엘리트주의·남성 위주의 가치관 등 전통적 형이상학 체계를 거부함으로써 주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sup>15)</sup> ‘탈 정전화’<사진 7>, 여러 형태의 모방을 통해 기존 장르의 붕괴 및 혼합이라는 절충주의의 확산을 의미하는<sup>16)</sup> ‘이종 혼합(Hybridization)’<사진 8>, 기존의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무시하는 ‘부조화의 조화’를 들 수 있다<사진 9>.

두 번째로 해체적 경향은 이제껏 소외되어 왔던 동양 및 주변 문화, 여성, 추, 빈곤 등을 다양한 양상

으로 전개시켜 나간다. 즉,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제 3의 성을 선호하게 되며<사진 10>, ‘T.P.O의 상호텍스트성’에서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모두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사진 11>. 탈 중심, 탈 구성, 이접, 무질서 등의 ‘Dis·De 탈 현상’은 비주류 문화 혹은 하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됨을 의미하며<사진 12>, ‘의미의 불확정성 원리’는 일정한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유연성을 지향한다<사진 13>. 과거의 양식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현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양면가치들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데 남성성과 여성성, 전통성과 현대성, 서구적·이국적인 것, 부와 빈, 기존의 미와 추 개념뿐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과감하게 혼용하는 등 양면적·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3> 패션에 나타난 추(醜) 이미지의 배경

T: Textuality('상호텍스트성'의 약자임)

경향	특성			
다 원 적 경 향				
	<사진 6> 불확정성	<사진 7> 탈정전화	<사진 8> 이중혼합	<사진 9> 부조화의조화
해 체 적 경 향				
	<사진 10> 성(性)의 T	<사진 11> T.P.O의 T	<사진 12> Dis, De현상	<사진 13> 불확정적원리

### Ⅲ.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와 색채

현대 패션쇼 메이크업은 무대의 성격·시즌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표현될 뿐 아니라 재료에 구속받지 않고 여러 기법으로 디자인된다. 특히 현대 패션쇼 메이크업은 전위적·해체적 경향의 패션과 함께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며, 여러 요소를 실험적·극단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그 중 색채는 1차적인 메시지 수단이자 가장 흥미 있는 시각적 요소로 바탕색이나 형태에 따라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며, 명도·채도의 변화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색의 긍정적 상징과는 반대되는 자극, 저속, 슬픔, 절망, 불안, 공포, 고통, 흥분, 질병, 죽음, 악마 이미지와 같은 부정적 상징을 띄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패션쇼 메이크업 860여 점을 통해 보여 지는 여러 형태 즉, 풍자적·추상적·혐오적·중성적·실험적·사이버 이미지를 역사형, 전위형, 퇴폐형, 해체형, 해학형, 미래형 등 6가지로 나누어 각 이미지에 따른 특징과 색채를 분석·정리하였다.

#### 1. 역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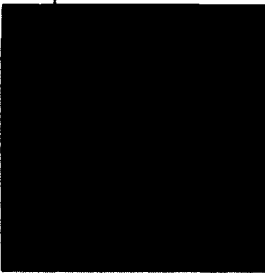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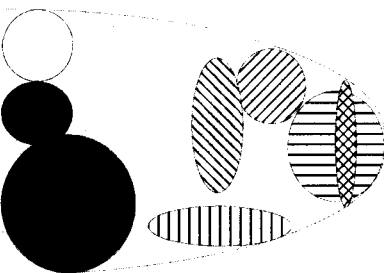
메이크업에 있어서 역사성은 특정 지역의 이미지 특히 동양적·원시적 요소를 창조적으로 수용·풍자하는 이국적 경향과 자연 및 과거로의 회귀 및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차용·변형한 복고 무드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사진 14> 1997년 Thierry Mugler는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을 응용하여 눈과 입술을 붉게 칠하고, 눈썹은 사선으로 짧게 올려 그린 반면 아이라인은 길게 과장하였다.

<사진 15> 1995년 Vivienne Westwood는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작게 축소시킨 입술에서 중세와 일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역사형의 대표색으로는 흑색, 적색, 백색으로 채도·명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이국적 메이크업 중 일본풍은 백색과 적색 계열이, 중국풍은 백색과 적색과 흑색, 아프리카 풍은 백색과 흑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복고적 메이크업에서 중세풍은 백색을 과용해 얼굴을 창백하게 하였고, 60년대 복고풍은 눈 화장에 흑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표 4> 역사형

		W 
<사진 14> 이국적 Thierry Mugler 1997, haute, fall	<사진 15> 복고적 Vivienne Westwood 1995, fall	색채분포도 black white red blue orange pink brown gray
Deep	4 1 9	4 8,1(R) 13
Main	24 12 15 3	3 6 9 16 1 53, 2(R)
Light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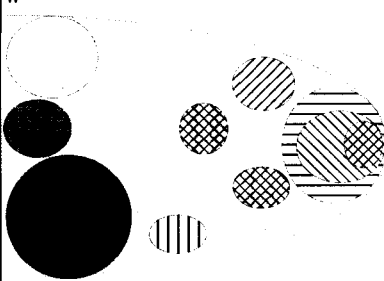
2. 전위형

전위형은 실험성을 바탕으로 표현의 무제한성을 보여주는데 형태를 표현할 때는 좌우 대칭·균형·비례 등의 통일감을 무시하거나 색채는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기발한 색채 감각으로 표현·특정

부분에 예기치 못한 색상을 사용하여 충격을 주기도 한다. 실험적 기교와 정신을 보여주는 전위형은 크게 추상적·그로테스크<sup>17)</sup> 경향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정형화된 미적 표현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감각으로 표현된다.

<사진 16> 2002년 LeeJeongwoo의 가을 collection

<표 5> 전위형

		W 
<사진 16> 추상적 JeongwooLee 2002, fall	<사진 17> 그로테스크 Alexandre Herchoovitch 2002, fall	색채분포도 black white red yellow pink brown gray 기타
Deep		
Main	9 3 1 6 1	1 2 3 12 1 16, 2(R)
Light	1	1

메이크업은 얼굴의 형태를 무시하고 얼굴 절반을 검정색으로 페인트칠하듯 칠하여 부자연스럽고 기이하게 표현한 실험적인 형태로 미적 규범을 철저히 와해시키고 있다.

<사진 17> 2002년 Alexandre Herchovitch는 얼굴 전체를 검정색으로 피기스럽게 표현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악마와 같은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전위형은 실험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표현에 있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렬한 색을 혼용하여 얼굴 전체를 흑·백·적색으로 표현, 얼굴의 각 부분을 무시하거나 일그러트리고 부조화된 색을 사용하여 미적 질서에 의도적으로 위배되게 한다.

### 3. 퇴폐형

퇴폐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 및 윤리의 타락 현상에 따른 불건전한 양상으로 정형화되어온 전통미를 해체하여 비정상적으로 표현한다. 퇴폐적 경향은 극도의 에로틱한 이미지 및 형태나 색을 과장한 혐오스런 문양으로 거부감을 주는<sup>18)</sup> 데카당스와 디테스터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진 18> 2001년 John Galliano의 봄 collection

에서는 눈 주변에 보라색의 문신형태와 입술을 붉은 색으로 흘러내리게 표현하여 저속하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기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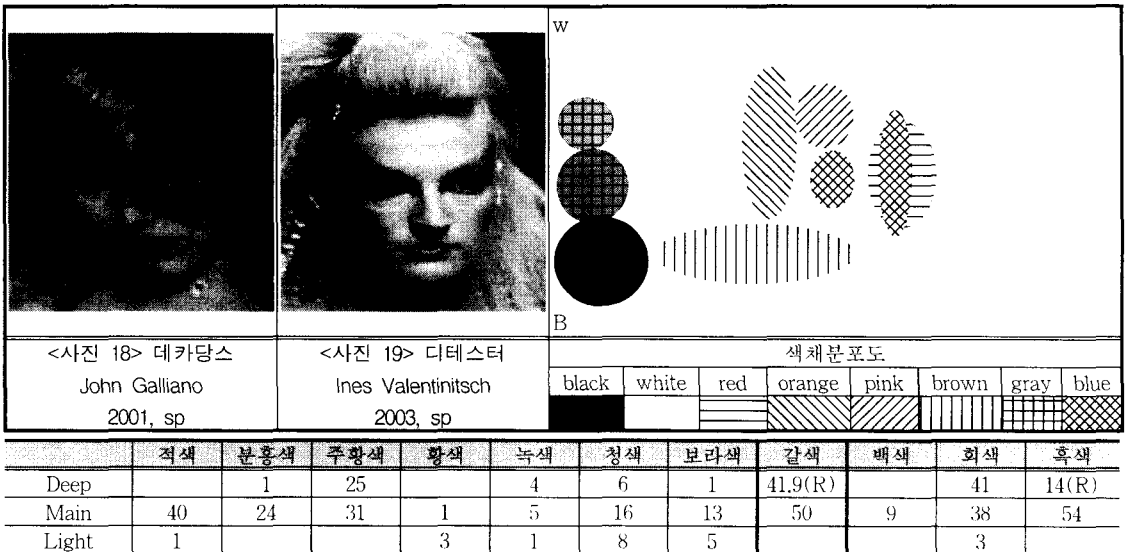
<사진 19> 2003년 Ines Valentinitisch의 봄 collection에서는 눈과 관자놀이 부분에 부채꼴 모양으로 회색 필을 발라 새의 눈 모양과 비슷하게 표현하여 공격적이며,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퇴폐적 경향은 주로 병적이거나 자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부조화된 색을 사용한다. 입술에 적색이나 검붉은 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에로티시즘을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흑색·진갈색, 진회색 계열 및 파랑·보라 등의 한색 계열로 눈 주변을 과장하거나 얼굴 전체를 어두운 색으로 지저분하게 하여 미적 규범에서 벗어나게 한다.

### 4. 해체형

해체적 경향은 성(性)·민족·기존방식의 해체를 들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와 펑크(Punk)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앤드로지너스는 형태보다는 색채를 극도로 제한하여 여성성을 은폐·어두운 색채를 사용하여 남성적 강인함을 표현하며, 펑크는 하위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여 기존의 표현 방식을 모호하게 한다.

<표 6> 퇴폐형



<사진 20> 1999년 Julien MacDonald의 가을 collection에서는 갈색으로 그을린 듯한 얼굴에 언더라인을 진하게 하고, 입술색을 제한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사진 21> 2003년 봄 Saviero Palatella는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은 핑크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회색과 검정, 검붉은 색으로 눈의 형태를 일그러트려 표현하였다.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에서는 색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피부색만으로 표현하거나 흑색, 회색 등의 무채색과 어두운 갈색 계열을 사용하며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발·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사진 22> 2002년 Comme des Garçons의 봄 collection에서는 머리카락을 모두 제거한 두상 위에 쓰레기나 페물로 여겨질 수 있는 신문을 오려 붙이고 이마에 흰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의외적인 웃음을 자아낸다.

<사진 23> 2002년 Dai Rees의 봄 collection에서는 아이라인 형태를 과장하여 검게 그리고, 볼 주변은 번개 모양의 지그재그 선을 이용하여 주황색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실험적으로 표현하였다.

해학형은 소재에 따라 색채가 다양하게 변화가능

<표 7> 해체형

<b>&lt;사진 20&gt; 앤드로지너스</b> Lagerfeld Gallery 2002, sp		<b>&lt;사진 21&gt; 핑크</b> Saviero Palatella 2003, sp		<b>색채분포도</b>						
				black	white	orange	skin	brown	gray	blue
Deep			6		3	6			17	
Main	1		3		2	5	3	3	3	37.2(R)
Light			1	1						

5. 해학형

해학은 이질적 요소의 도입·강조·변형·모순 등을 통해 놀라움과 쾌감을 느끼게 하는데<sup>19)</sup> 조형 요소를 무시하고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콜라주(Collage)나 기하학적 형태의 실험성을 통한 그래픽(Graphic) 메이크업을 들 수 있다. 콜라주는 색채나 질감보다는 소재와 형태에 비중을 두며, 그래픽 메이크업은 직선·사선은 물론 원·삼각·사각 등의 기하학적인 선에서부터 색채 배색을 통해 흥미를 유

하며, 비일상적인 소재와 소재에 따른 색의 엉뚱한 배치가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6. 미래형

미래의 사이버적인 비인간적 이미지나 두려움과 불안감의 디스토피아(distopia)<sup>20)</sup>적 관점인 세기말적 분위기로 묘사한다. 얼굴 전체에 필을 발라 차가운 분위기로 표현하거나 직선·기하학적인 선을 통해 속도감을 부여하며, 어두운 미래를 표현하듯 무채색





동성과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색채 대비가 큰 원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으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각 요소간의 모순적인 경향을 극도로 표현함으로써 초월적인 자유로움을

<표 10> 추이미지 메이크업의 얼굴 부위별 표현 특징

부위	특징	메이크업 기법	색채
얼굴	비례, 균형, 조화 등의 디자인 요소를 무시·변형·과포한 비대칭적 형태	매트, 펠 글로시	갈색, 흑·백색, 적·한색
이마	실험성을 바탕으로 한 추상적·기하학적 형태	매트, 펠	백색, 원색
눈썹	형태의 파괴·과장·생략, 기하학적 형태	매트	흑색, 흰색, 적색
눈	형태의 확대·과장, 사선 형태로 공격적·악마적 분위기 연출	매트, 글리터 펠, 글로시	흑·백색, 적·한색·난색
코	거의 응용되지 않음 Nose shadow를 과장, 형태 무시	매트	흑색, 갈색
입술	입술 형태 파괴·생략, 기하학적인 형태	매트, 펠 글로시	흑·백의 무채색, 적·한색
볼	기하학적·추상적 형태로 표현	매트, 글로시	원색
공통	형태 파괴·변형·과장·생략을 통한 추상적·기하학적 형태	매트 글로시	얼굴: 갈색, 백색 눈: 흑색, 입: 흑백색

<표 11>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와 색채

추 이미지	색채
역사형	1. 동양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혼합·과장·왜곡·변형 2. 과거 양식의 재해석
전위형	1. 통일감 무시 2. 기발한 색채감각 3. 질감의 과장 4. 비일상적인 소재
퇴폐형	1. 형·색을 과장하여 혐오, 그로테스크, 에로틱한 이미지 2. 더럽고 추한 악취미
해체형	1. 양성적·증성적 2. 다른 문화 이미지 차용 3. 하위 문화 수용
해학형	1. 일상적 규칙 위반 2. 이질적 요소 도입 3. 변형·모순·부조화
미래형	1. 인체 분석·종합 2. 세기말적 경향

추 이미지	색채
이국적	오리엔탈리즘 원시적 타투
복고적	과장·변형되어 표현
추상적	자유로운 추상적 표현
그로테스크	파괴·해체를 통해 일그러진 형상 표현
데카당스	악마적 분위기
디테스터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분위기
앤드로 지너스	색채의 제한적 사용
핑크	공격적이고, 불쾌하게 표현
플라쥬	모방·과장
그래픽	기하학적인 선과 색채 배색
사이버 핑크	기하학·추상적 패턴으로 미래지향적

#### IV. 현대 메이크업의 색채에 표현된 추(醜)이미지 특성

1990년 후반을 전후로 메이크업에는 패션과 함께 형태 파괴,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인 추의 미가 본격적

보이게 된다. IV장에서는 로잔크란츠의 추의 개념을 이루는 물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에 따른 색채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단, 메이크업의 외재적인 이미지에 따른 색채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점을 갖는다.

### 1. 물형식성

불일치·불균형·부조화 세 개념으로 구분되는 물형식성은 대칭·균형·조화 등의 기본적인 디자인 원리를 파괴·무시하여 표현한다. 불일치는 일반적인 색의 사용 범주를 파괴·엉뚱한 색을 사용하거나 여러 색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미적 질서에 위배되는 디테스터 메이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불균형은 조화 원리에서 벗어나 좌우가 다른 색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생략하여 디자인의 균형을 깨트리는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을 들 수 있으며, 부조화는 완성된 메이크업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로테스크나 디테스터 메이크업으로 얼굴 일부를 은폐시키기 위해 색을 극도로 축소·생략하기도 한다.

### 2. 부정확성

미적 범주로서의 부정확성이란 예술 법칙성의 위배에 따른 '예술적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성과 일관성보다는 임의성이나 우연성으로 표현하여 미완성 혹은 불완전의 미를 추구한다. 그에 따르면 통일성, 비례, 조화 등의 정확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추한 것이 되는데 색채에 나타난 부정확성은 얼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색을 극도로 과장하거나 반대로 색 사용을 최대한 줄여 형태를 은폐·생략함으로써 어떠한 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추상적인 형태를 만든다. 이를 통해 표현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 3. 왜곡

왜곡이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에 대한 무시를 뜻하는 것<sup>21)</sup>으로 정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유쾌한 웃음을 배제시킨다. 추 이미지의 색채에 나타난 왜곡은 의도적으로 색의 조화를 파괴하거나 기형적인 색의 형태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거나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도록 불쾌하고 공격적으로 표현·인간이 느끼는 황폐함을 공포스럽게 표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비속은 숭고의 대립적 의미로 어떤 행위 속에 우리의 이상과는 적대적인 특질이 과도하게 구현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인간 내부의 모든 밝은 면을 거부하고 더럽힌다<sup>22)</sup>. 색채에 나타난 비속은 적색, 한색, 흑색 등의 색상 대비가 큰 자극적인 원색을 사용하여 세기말적·퇴폐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카당

<표 12> 현대 메이크업의 색채에 표현된 추 이미지의 특성

구분	특징	색채 표현	메이크업	
물형식성	불일치	형식의 반대, 난잡한 형태	1. 색의 일반적 영역 무시, 엉뚱한 배치 2. 여러 색의 극단적 혼합, 산만한 느낌	전위형, 해학형
	불균형	비형식 및 균형의 부재	1. 색의 조화 원리 파괴·비대칭적 표현 2. 지나치게 축소·한쪽만 생략	전위형, 해학형 해체형
	부조화	중속적 대칭과 규칙성 배제	1. 의도적으로 파괴·미완성 2. 변형·은폐	전위형, 퇴폐형 해체형
부정확성	예술적 불완전, 통일성·조화의 결여, 임의성·모호성	1. 색을 극도로 과장·형태 파괴 2. 색의 제한 및 축소·생략에 따른 추상적 형태·새로운 해석 가능성 제시	전위형, 퇴폐형 해체형, 미래형	
왜곡	비속	적대적 특질이 과도, 질서파괴, 퇴폐적 경향	1. 인위적·자극적 원색 2. 에로틱·불건전한 이미지 3. 인위적인 장식	퇴폐형, 해학형
	혐오	풍자적 묘사를 통한 유쾌한 웃음 배제	1. 죽음, 악마적인 분위기 2. 퇴폐적 타투 형태	전위형, 퇴폐형 해체형
	희화	모순에 근거한 대조 감정-불쾌감 극복	1. 단순화와 과장 2. 위치 변형·모방·과장	역사형, 전위형 해학형

스 메이크업과 인위적인 장식을 가하는 플라쥬 메이크업을 들 수 있다.

둘째, 혐오는 비정상적인 신체의 변형 및 생략된 신체표현 등으로 색채에 나타난 혐오는 주로 어둡고 차가운 색조나 붉은 계열을 사용해 죽음·악마적인 분위기 및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핑크 메이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회화란 단순화와 과장을 통해 예술 작품의 결합을 표현함과 동시에 현실을 왜곡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데 의외의 놀라움에서 기인한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 극복되는 즉, 모순에 근거하는 대조감정인 것이다. 메이크업의 색채에 나타난 회화적 표현은 다른 문화의 이미지를 변형하여 모방하는 이국적·복고적 메이크업과 부적절한 위치에 색을 적용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추상적 및 해학적 메이크업이 있다.

## V. 결 론

20C 이후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은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미적 의의를 매우 광범위하게 하였으며, 추 개념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메이크업의 표현 범주를 확대·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색채를 중심으로 한 고찰은 다른 조형 요소를 응용한 표현 및 반미학적 패션과의 관계를 예측·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醜는 美가 결핍된 상태로 미적 범주 가운데서 최대한 불쾌하고 부조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이다.

둘째, 미술에서는 황·적·흑·청·백·녹색 등의 강렬한 원색을 극도로 과장, 형태를 왜곡·변형·과괴하는 전위적 성격이 인상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패션에서는 불확정성, 탈 정전화, 이중 혼합과 부조화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경향과 탈 중심, 탈 구성, 이점, 무질서 등의 Dis·De 탈 현상 및 의미의 불확정

성을 띄는 해체적 경향이 패션에 있어 추이미지의 배경이 되었다.

셋째,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이미지와 색채를 역사형·전위형·퇴폐형·해체형·해학형·미래형 등 6가지 경향으로 정리하였는데 주로 흑·백·진회색 등의 무채색과 한·적·흑갈색 등이 과도하게 혼용되었으며, 형태·질감·소재에 있어서도 무제한적인 실험적 기교가 엿보인다. 21C를 전후로 표현된 색채의 특징 및 차이는 다음과 같다.

2000년 이전에는 세기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등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 흑색과 진회색 등의 무채색과 진청색, 흑갈색 등 저채도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후 추상, 플라쥬, 그래픽 등 실험적인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색에 의한 추이미지 표현에서 벗어나 전위적인 형태와 고채도의 색상이 혼용되어 표현되는 등 색의 사용이 더욱 광범위해졌다.

넷째, 현대 메이크업의 색채에 표현된 醜 이미지 특성 중 몰형식의 불일치는 색의 일반적인 사용 범주를 무시한 엉뚱한 배치나 여러 색으로 산만한 느낌이 들게 하여 미적 질서를 파괴한다. 불균형은 좌우가 다른 색을 비대칭적으로 사용·양쪽 중 어느 한쪽을 생략하여 디자인의 균형을 깨트리며, 부조화는 완성된 메이크업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얼굴 형태의 일부를 은폐시키기 위해 색을 극도로 변형·축소·생략하여 표현한다.

부정확성은 색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색 사용을 최대한 줄여 형태를 은폐·생략하여 어떠한 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추상적 형태를 만듦으로써 표현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마련함으로써 불완전의 美를 추구한다.

왜곡의 비속은 색상 대비가 큰 원색을 사용하여 세기말적인 퇴폐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혐오는 어둡고 차가운 색조와 붉은 계열을 사용해 악마적인 분위기나 비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며, 회화는 작품의 결합을 조롱·경멸하기 위해 색채 이미지를 다소 변형·과장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적용하여 뜻밖의 놀라움과 우스꽝스러움의 효과를 유발한다.

추 이미지 메이크업에 흑, 적, 한색의 사용이 많은 것은 이러한 색이 공포, 죽음, 악, 비애 등의 격한 감정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백색은 세기말의 어두운 현상과 사회 병폐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참고문헌

- 1) 채금석 (2002).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 12.
- 2) Aristotle, S. H. Butcher (1961). *Poetics*. New York : Hill and Wang, pp. 7-8.
- 3) 논장 편집부 (1998). *미학 사전*. 서울: 논장, p. 405.
- 4) 김문환 (1989). *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p. 89.
- 5) 윤순향 (1985). Karl Rosenkrant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48.
- 6) 천재욱 (1992). 현대 예술 사조가 조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3-84.
- 7) Matei Calinescu, 이영옥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시각과 언어, pp. 125-157.
- 8) 캐롤 스트릭 랜드. 김호경 (2000).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출판사.
- 9) 김래현 (1990). *표현주의 문학운동의 성격과 문제점*. 서울: 민음사, p. 139.
- 10) 이명재 (1991). *현대미술에 있어서 원시적 상징성의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1-45.
- 11) Cubist, 세잔느의 “자연은 원통, 원추, 구로 되어 있다”는 이론과 아프리카 조각의 원시적 형태감에서 영향을 받은 20C초 미술사조이다.
- 12) Edward Luce Smith (1969). 임영방, 김춘길 공역 (1981). *전후현대미술*. 서울: 장학사, p. 33.
- 13) 유승욱, 이은영, 황선진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pp. 238-329.
- 14) Ihab Hassan (1985). *Post-Modernism*. 서울: 종로서적, p. 420.
- 15) 권택영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p. 429.
- 16) Caroline Evans & Minna Thorton (1989). *Woman & Fashion*. New York: Qurtet Book, pp. 59-80.
- 17) 그로테스크란 이질적인 것의 결합에 의한 부조화 또는 과장과 극단을 통한 비정상적 형태, 웃음과 공포-불쾌함과 유쾌함-혐오스러움과 재미를 동시에 체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18) 김현미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7-59.
- 19) 하지수 (1994). *현대 패션에 표현된 유희성*. 복식 (22), p. 75.
- 20) 송영경 (1999). *현대 복식에 나타난 디스토피아 경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52-53.
- 21) 안선경 (1994).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2.
- 22) 김현미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